

Reading Comprehension

00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Humans are not ruthless primates. But perhaps, **to whom, they are.** (누군가에게는→상대적이다)

인간들은 무자비한 영장류가 아니다. 그러나 아마도, 누군가에게는, 그들은 무자비하다.

Born from a drop of water until to be a being up above all, we humans have slaughtered lots of, truly lots of beings to look after ourselves.

하나의 물방울에서 태어나서부터 모든 존재들의 위에 설 때까지, 우리 인간들은 우리 스스로를 돌보기 위해서 수많은, 정말로 많은 다른 종들을 학살해왔다.

However, a handful of gunpowder cannot light up the whole forest forever. →영원한 강자는 없다.

그러나, 한 줌의 화약은 전체 숲을 영원히 밝힐 수 없다. **gunpowder→인간, forest→자연**

It is a fragmentary approach if you try to understand how the order of nature flows only with following consequences.

만약 당신이 자연의 질서의 흐름을 잇따른 결과들로만 이해하려한다면 이것은 단편적인 접근이다.

From ancient times to today, **ranks have switched**, taken their turns, that the present strongest were the past weakest and present preys didn't pray to be not preyed on in the past.

고대부터 오늘날 까지, 순위는 변해왔으며, 서로 자리를 빼앗아가며, 오늘의 최강자가 과거에는 최약자였고 오늘의 먹잇감은 과거에는 먹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았다.

No one can say this traits of survival is cruel, rather aggressive self-defense.

그 누구도 이런 생존의 과정을 잔인하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것은 공격적인 자기 방어이다. **cruel = ruthless**

Even if now we are on the way we weigh, one day after today there comes **a new ruthless king to take the throne above.** →인간보다 상대적으로 더 ruthless한 존재가 나타날 것이다.

비록 지금 우리는 우리가 통제하는 길 위에 있지만, 오늘 이후 언젠가 우리의 왕관을 빼앗기 위해 새로운 무자비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Only if we strive against inevitable fate which belongs to us, **our precarious throne can stay isolated slightly more.** →우리가 아무리 애써봐야 결국 왕관을 빼앗길 것이다.

오직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불가피한 운명과 싸우는 경우에만, 우리의 위태로운 왕관은 잠시라도 더 격리될 수 있다.

Therefore, **the ruthless is a mortal throne in worlds of relativity.**

그러므로, 무자비함은 상대성의 세상에서 필멸적인 왕관이다.

- ① 인간들은 전체 자연을 단편적으로가 아닌 결과적으로 지배해왔다.
- ② 진화 체계는 과거보다 더 무자비해지고 있다.
- ③ 무자비함은 상대성의 세상에서 필멸적인 왕관이다.
- ④ 공격적인 자기방어는 자연의 질서를 의미하지 않는다.
- ⑤ 아마 새로운 무자비한 왕은 먹잇감의 자세를 취할 것이다.

...iBex Study

Reading Comprehension

00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Given circumstances can take precedence over nature.

주어진 환경은 본성에 우선한다.

This is why your lovely cat sleeps besides you at night time.

이것이 당신의 사랑스러운 고양이가 밤에 당신 옆에서 자는 이유이다. → **이행성인 고양이가 주인 곁이라는 환경에 따라 밤에 자기에 본성을 거스른다.**

God created things for what they should be, that water flows down the valley and sun rises after dawn.

신은 존재들을 마땅히 그해야 하는 방향으로 창조했는데, 물은 계곡을 따라 아래로 흐르고 태양은 새벽 후에 떠오른다.

If there is nothing wrong, all the pre-made keeps up with the mainstream.

만약 잘못된 것이 없다면, 모든 미리 만들어진 것들은(피조물들은) 주류 흐름에 따른다.

But what if something different tries to counter against this predictableness? Will it be wrong? Does it bring about wrath of God?

그러나 만약 무언가 다른 것이 이런 예측가능함에 반기를 든다면 어떨까? 틀린 것일까? 신의 분노를 초래할까?

No, of course not, nothing changes. Rather, **this is another kind of predictableness it should be.**

아니, 당연히 아니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다른 종류의 마땅한 예측가능성이다.

→ **방향이 다르더라도, 주류에 거스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Water can't flow down in winter because it freezes.

물은 겨울에 얼기 때문에 흘러 내려갈 수 없다. → **환경에 따라 주어진 본성이 통제된다.**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lways changes under various conditions, **hence if something goes as predicted, it means that it proceeds along its way without going backward, no matter where to go.**

주변 환경은 언제나 변화하며, 그러므로 만약 무엇이 예측된대로 나아간다면, 이것은 뒤로 가는 것을 제외한 방향에 상관없이 그것이(무엇이) 그것의 스스로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At this point, there is no retrogression : Everything goes forward.

이러한 관점에서, 역행은 없다. : 모든 것은 앞으로 간다.

Therefore, in a strict sense, the pre-made is not beings that do act upon themselves.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미리 만들어진 것들은 스스로 행동을 하는 것들이 아니다.

God just sculpted 'the willingness' in advance. → **신은 '의지'를 만들었기에 피조물들은 자신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신은 단지 '의지'를 미리 조각했다.

- ① 주어진 환경은 본성에 우선한다.
- ② 전지전능한 창조자는 정확하게 미리 만들어진 것들을 조각했다.
- ③ 외적 역행은 내적 본성에 후에 온다.
- ④ 예측가능성은 이것이 쓸모있기 전에는 의미없다.
- ⑤ 의지는 역행을 거스르는 핵심이다.